



# 사회·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리스크관리 수행

2015년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와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비즈니스의 확대, 핀테크 도입과 같은 시장의 혁신이 지속되고 국내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외부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금융기업의 핵심 경영 요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신한금융그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리스크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제반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리스크관리 철학을 기반으로 7대 리스크 관리 원칙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 업무 수행 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차원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그룹 통합 리스크 관리 체제 구축 및 그룹사간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리스크 관리 인프라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스크를 고려하여 책임 있는 여신 정책 및 여신 의사결정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사회적 잠재리스크 영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리스크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리스크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신한금융그룹은 각 그룹사 리스크 관리 담당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제별 학습 및 연구, 토론 등을 진행하는 그룹 공통 학습형 조직 '리스크 전문가 네트워크(이하 'REN': Risk Expert Networ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룹의 리스크 현황을 공유하고, 그룹사간 시너지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다양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6개의 Unit에서 그룹 차원의 리스크 전략 과제와 연계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우수한 결과물을 도출한 Unit에는 시상 및 개인 포상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스크 부서 외의 직원들도 필요 시 함께 참여하여 신한금융그룹의 리스크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2015 REN 주요 연구 주제

- 해외진출과 리스크 관리
- 리스크지표 리뷰 및 선행지표 발굴
- 고객자산 리스크 관리
- 인구구조 변화 및 부동산가격 하락
- Risk Issue Raising
- 대체투자 자산배분 전략

## 리스크관리 체계

신한금융그룹은 지주사 이사회 내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그룹리스크 관리위원회’)를 통해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본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룹 리스크 관리 최고책임자(CRO)는 그룹리스크관리 위원회를 보좌하며, 각 그룹사 리스크관리 최고책임자들로 구성된 그룹리스크협의회를 통해 리스크에 대한 정책 및 전략을 논의합니다. 각 그룹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리스크 관련 실무위원회,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은 그룹 차원의 리스크 전략을 시행하며, 이에 따른 세부 리스크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룹의 안정적인 리스크 수준 관리를 위해 계층적인 한도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그룹 및 그룹사별 부담 가능한 리스크 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데스크별 · 리스크 유형별 · 부서별 · 상품별 등의 세부 리스크한도는 각 그룹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 관련 실무위원회를 통해 설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리스크관리 워크숍

### 신한금융그룹 리스크 관리 원칙

- 모든 영업활동은 사전 설정된 위험성향 내에서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 지주회사는 그룹리스크 관리모범규준을 제시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그룹 차원의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한다.
- 경영진의 관여를 제고하는 리스크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한다.
- 영업부문과 독립적인 리스크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 비즈니스 의사결정시 리스크를 명확히 고려하게 하는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한다.
-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리스크관리 기능을 지향한다.
- 평상시에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신중한 시각을 공유한다.

## 리스크관리 영역

신한금융그룹은 시장환경의 변동성이 높은 금융업 특성상 재무적 리스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사회 및 환경적 리스크를 포함한 비재무적 리스크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인지하고 관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재무적 리스크

- 신용 리스크**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 시장 리스크** 금리, 주가, 환율 및 상품가격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
- 금리 리스크** 금리변동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변동 등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 유동성 리스크** 자산의 유동성이 부족해 대외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 비재무적 리스크

- 운영 리스크**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인력 또는 업무절차, 시스템 오류 및 외부사건으로 인한 리스크
- 전략 리스크** 불리한 사업결정, 부적절한 결정의 수행,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결여 등에 따른 리스크
- 평판 리스크** 경영부진, 금융사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고객, 주주 등 외부 여론 악화에 따른 리스크
- 법률 리스크** 각종 계약 문서의 이해 부족 또는 소송 등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
- 환경 리스크** 환경관련법규 대응력 부족으로 인한 과징금 발생, 영업손실 등에 따른 리스크

## ESG 리스크 고려

재무리스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산업안전, 공급망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가 대두됨에 따라 사회 및 환경적 리스크를 포함한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신용평가모델의 비재무 평가사항 중 하나로 사회책임경영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항목을 통해 여신 취급 시 해당기업의 윤리경영, 제조물 책임(PL, Product Liability), 협력회사와의 관계 등 평판, 환경오염 관련 민원 발생 여부, 고용창출 실적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열위)-F(아주 열위)' 총 6등급으로 평가되며, 평가결과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사회적 건전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노사가 서로 협력하고 직원 만족과 안정적 경영 노력을 수행하는 업체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개선하는 한편, 신용평가시스템 적용 범위를 기존 은행에서 전 그룹사로 확대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평판리스크를 고려하여 유흥주점, 대부업체, 도박장 등 불건전 업종에 대한 여신 취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신 취급 전 차주의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자금 용도에 대한 점검 및 심사를 위해 회사 정관 검토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여신 취급 이후에도 용도에 따른 자금 사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규모 PF 실행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환경, 사회적 영향을 검토한 후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의 경우 도로, 항만, 발전 등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시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 관계기관의 환경영향 평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실행하고 있으며, 관련 인허가를 투자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대출약정서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인허가뿐만 아니라 환경 전문 자문기관을 통해 해당 사업이 미치는 환경·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 후 투자를 실시합니다.

신한 BNP파리바자산운용은 펀드 운용을 통한 펀드 투자대상 선정 시와 주식·채권형 펀드 투자 시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판매, 유통, 기술개발 등에 연관된 기업 및 그 모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리스크관리 인프라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신한금융그룹은 리스크관리 인프라 및 내부통제 강화 부문에서 우수한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더벨 리스크매니저어워드(2015 thebell Risk Manager Awards) 에서 신한은행이 지식경쟁기반의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인 '리스크천리안' 으로 대상, 신한금융지주가 '그룹 리스크 대쉬보드(Dash Board) 운영체제' 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국내 금융그룹 중 처음으로 도입된 '그룹 리스크 대쉬보드 운영 체제' 는 그룹사별로 운용 포트폴리오의 자산 증가, 위험 증가 또는 대외 환경적 이슈에 대한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3차원 모니터링 체계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모니터링 영역은 157개에 달하며, 2015년 신한은행 대쉬보드에 기술금융 모니터링 영역을 추가하는 등 매년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업무 프로세스에 내재된 위험과 그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통제수준에 대해 인식,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위험통제자가진단(RCSA; Risk Control Self Assessment)을 수행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벨 리스크매니저어워드 수상

## 향후 계획

신한금융그룹은 2016년에도 급변하는 환경에 대해 선제적으로 위기를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개선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금융규제 및 금융사고 등 사회적 잠재리스크와 관련된 영역을 추가하여 2017년부터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사회적 요구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여신정책 및 여신사결정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2016년에는 대포통장 개설 및 전자금융사기, 펀드/방카 불완전판매, 퇴직연금 사후관리 등 금융소비자 권의 보호와 관련이 깊은 운영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서도 내부통제를 위한 인식 및 평가 범위를 확대하여 그룹의 핵심 미션인 따뜻한 금융과 사회책임경영의 실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